“다음세대를 이끌어갈 교육선교 더이상 미룰수 없다”- Dr. Seungho Pi, UCiC Schools 대표

한국,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등 여러 선교지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했고 현재는 미국 시애틀 UCiC Schools 의 대표로 섬기고 있으며 세계의 학교들, 특히 국제학교들의 인가와 운영을 컨설팅 해오고 있으며 세계 선교지 학교의 설립을 돕고 있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현실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따르는 기쁨을 가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18:20)” 그 나라의 지역학교나 오지 선교를 방문 하며 축복을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행복의 기억이 많다. 기독교 학교는 교회의 역할로 다음세대들에게 하나님 교육을 전수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관이자 선교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단체라 경험하고 있다.

교육은 선교에서 중요한 전략중 하나로 이용 되고 있다. 특히 학교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대부분 선교지의 대도시에는 좋은 시설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학교들이 비싼 교육비를 받으며 그 나라의 외국인 자녀들고 고위층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사역은 학교를 세우더라도Local 학교를 세워 중산층이나 저소들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것이 선교지 학교들의 현실일 것이다. 선교사들을 만나면 가장 큰 고민중 하나는 바로 자녀들의 교육일 것이다. 선교지의 현지인 학교를 보낼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싼 국제학교를 보낼수도 없어 선교지에서 가장 현실적인 큰고민중 하나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 학교에서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세우거나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수 없는 대안으로 생각 된다.

What if…?

1. 만약 선교전략으로 선교지에 국제학교를 세운다면 어떠할까?

현지 선교사들과 이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면 “좋은소리, 가능만 하다면” 라는 비현실적이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1. 선진화된 나라에서 Headquarter 역할 필요

선교지에서 국제학교를 세운다는것, 특히 한국인 선교사로 국제학교를 세운다는것은 쉬운일은 아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화된 나라에서 중심이 되어 선교지에 국제학교를 세우고 필요를 돕고 Support 할수 있다면 현실화 시킬수 있는 과제가 될것이다.

1. 미국과 같은 선진 나라에서 Headquarter 역할의 기독교 학교 세우기

미국과 같이 선진화된 나라에서 기독교학교를 세우는것 또한 용이한 일은 아니다. 미국내 교회들의 감소와 같이 기독교 학교들의 수도 동반 감소하고 있다. 특히 LGBTQ 의 인권이슈로 기독교 학교의 입학과 운영들이 훨씬 복잡해지고 어려원진것도 기독교 학교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교지 국제학교를 Support 할 미국내의 기독교학교 설립 운영도 어려운 일이다.

1. 기업 성장 vs 교회 성장 (“상생경제”)

경제적 변동과 불안감, 인권의 강화로 기독교 학교들의 입지가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 하지 않는다면 계속 어려워져만 가는 상황에서 기독교 학교의 성공 여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이전 한국의 기업들과 기독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기업들은 “상생의 시장경제”라는 표어아래 많은 변화들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교회들은 대형교회를 표방하며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였다.

“사회가 실패하는데 기업만 혼자 성공할 수 없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잘되기 위한 상생의 시장경제로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정xx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12일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생의 시장경제, 한국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상생의 시장경제는 연구소에서 1년 동안 연구했던 주제”라며 “한국경제가 앞으로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일부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 상생의 시장경제란 대기업·자본·정규직 등 선도부문과 중소기업·노동·비정규직 등 상대적 취약부문 사이에 성장의 상호의존성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경제주체 간 서로의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지향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의 한국의 기업들과 교회들은 같이 성장하거나 정체될것 같았으나 결과는 기업들은 계속 성장해나가는 반면 한국 교회들은 정체되거나 위축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수 있으나 기독교학교를 운영해 오며 한국 교회의 큰성장을 이루면서도 두드러지게 문제로 생각되던 “협력” 과 “상생” 의 부족함이 두 집단 결과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2008년 한국에 돌아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할때 가장 힘들었던것이 교회와의 협력이었고 특히 저자가 주장하는 “지역사회 기반 기독교 학교 설립” 이란 Agenda가 나왔을때 교회들로 부터 Support 를 전혀 받을수 없었다. 교회간의 협력과 상생이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기반의 교회들이 하나의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일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

1. 상생과 협력의 Power

이곳 지역의 경우 공립학교 하나의 School district 안에 30개 이상의 사립학교 들이 있고 Preschool 까지 100개 이상의 사립교육 기관이 존재 한다. 기독교 학교도 15개 이상이고 만약 이 기관들이 협력한다면 공립학교보다 훨씬 우수한 양질의 교육은 물론 아이들의 인성교육,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수 있는 신앙교육을 담당할수 있다. 이 지역의 15개 모든 기독교 학교들이 교회에 속하거나 최소 Affiliated 되어진 Governance 를 보이고 있듯이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들은 교회와 연관되어 운영되어 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 기독교 학교들 사이에서도 많은 경쟁이 있고 심지어는 서로를 비방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1. 상생 모델의 기독교 학교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다. 기존 지역사회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수 있고 교회들과 협력하여 일주일 내내 신앙훈련으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교육할수 있을뿐 아니라 선교지에 국제학교(미국의 Local 기독교학교) 의 설립 하며 운영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 국제학교 운영을 위한 a. 외국교사 b. 교육 Resource 제공 c. 국제인가 d. Network with schools in other countries e. Funding for seed money등 양질의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제공하며 도울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선교지의 국제학교가 선교적 전략으로 사용될때 하나의 국제학교를 통해 다수의 Local 학교들이 설립될수 있고 이를 통해 마 28장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룰수 있는 하나의 선교적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라는 한국의 속담처럼 “잘 키운 국제학교하나 열Local 학교를 섬길수 있다”. 국제학교의 시설과 교사진, 학비는 일반 Local 학교에 비해 교육비가 몇배 심지어는 몇십배 비싼 경우가 현실이고 비싼 교육비와 비례하여 좋은 시설과 외국교사를 불러 학교운영 하는것이 선교지에서는 비현실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선교사님들도 국제학교에 대한 비젼은 있지만 시설투자, 국제교사 채용등 설립과 운영이 쉽지 않아 선교지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것이란 쉬운일이 아닐것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학교에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등 각분야의 리더들의 자녀들이 등록하여 교육 받고 있으며 저자가 국제학교에서 일했을때도 많은 정치, 경제등 각분야의 리더들의 자녀들을 교육 시켰다. 다수의 선교사님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거나 선교지에서 국제학교의 영향력이 크다라는것에 이해한다 생각된다. 만약에 이러한 양질의 국제학교를 선교적 목적으로 세워 운영한다면 국제학교의 영향력이 크듯이 선교적으로 그 영향력이 대단할것이라 생각 된다. 선교적략으로 하나의 부족에 들어가 그 부족의 촌장을 설득한다면 놀라운 선교적 결과를 기대할수 있듯이 국제학교를 통해 각 분야의 지도자과 연계되어 관계를 쌓고 도움을 받아 일한다면 그 결과또한 효과가 클것이라 생각된다.

Summary

화합과 동역의 힘

선교지에 학교를 support 할수 있는 세우는 일은 미국과 같은 선진화된 나라에서 선교지에 학교를 support 할수 있는Headquarter 역할을 할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것이 선교적 효과를 높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 Local 기독교학교를 세우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그 기독교학교를 같이 세우기 위해 교회들의 협력, 상생 학교를 위한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다. 연합의 학교가 세워지면 그 지역사회가 복을받고 다음세대의 교육을 감당하는 복을 받고 그 복이 선교지에 양질의 국제학교를 통해 그 지역의 외국인들과 상류층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선교적 방법과 그 국제학교를 통해 중,하류층 Local 학교가 설립되어 계층을 넘는 기독교 교육을 현실화 하여 선교지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며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자로 만들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현실화 시킨다.